

대한 양계협회

소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안)에 대한 본회의견 제출 —자조금 조성방법과 사용목적에 제도적 보완 필요—

본회는 지난 4월 7일 법률로 공포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에 대한 본회의 의견을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였다.

본회 의견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중 자조금 조성방법과 사용목적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본회의 견을 제시하였다. 자조금의 용도에 조사연구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신제품개발사업, 정책연구개발사업 등을 추가 삽입하도록 요청하였다.

농림수산부 시행령(안)과 본회 의견 대비표

개 정 령 안	본 회 의 견
제23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은 업종별 생산자 단체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생산자 단체는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자조금의 조성방법)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생산자 단체별로 조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은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납부하는 거출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 단체가 조성하는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조성기준, 운용, 관리, 집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보조금의 지급) ① 생략 ② 생략 ③ 농림수산부장관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제24조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체가 농어민으로부터 조성하여 자조금으로 매년 적립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육조절사업 2.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 3.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기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5조(보조금의 지급) ○ 제1항내지 제2항 시행령(안)과 같음. ③ 시행령(안)과 같음. 1. 시행령(안)과 같음. 2. 시행령(안)과 같음. 3. 시행령(안)과 같음. 4. 조사연구 사업 5.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6. 신제품 개발사업 7. 정책연구 개발사업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된 보조금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할 수 있다.	8. 시행령(안) 제4호와 같음. ④ 시행령(안)과 같음.

추가삽입

해외파견 초생추 감별사 총 263명

본회가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초생추 감별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4개국에 총 263명이 파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국가별로 알아보면 미국이 122명으로 가장 많고 서독 23명, 캐나다 22명, 오스트리아 14명, 헝가리 11명, 영국 10명, 스페인 9명을 비롯하여 터키, 노르웨이, 볼리비아, 스위스, 벨기에, 나이지리아, 도미니카, 이란, 홍콩, 우루과이, 덴마크, 이스라엘,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가공 및 유통에 관한 세미나 개최 -미국 닭고기 가공의 현황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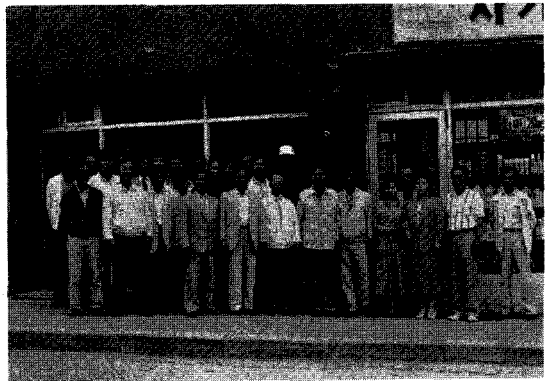
본회는 미국대두협회와 한국식육연구회 후원으로 닭고기 가공,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세미나를 지난 5월 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하였다.

양계관련 종사자를 비롯하여 닭고기 유통업체, 식품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Kansas 주립대학 축산학과 커닝햄 박사의 “미국 닭고기 가공산업 발전전략 및 닭고기 가공현황”,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하영원 박사의 “우리나라의 육계산업 유통과 소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커닝햄 박사는 미국의 식품산업을 선도해가는 닭

고기 가공 현황과 다양한 가공품을 소개하였으며, 하영원 박사는 육계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열화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115페이지 참조

평택산란분회 현판식 거행



평택산란분회(분회장 김덕현)는 지난 5월 16일 분회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현판식에서는 최준구 채란분과위원장을 비롯하여 천안, 광주지역 채란인 2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평택분회는 지난 73년부터 평택지역 양계인들의 모임으로 발족하여 평택계우회라는 명칭으로 양계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오다 지난해 9월 본회 분회로 정식 가입하였다. 3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사료공동구매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초생추감별사 자격시험 103명 신청 -갑종 101명, 고등 2명-

90년 제1차 초생추감별사 자격시험에 갑종감별사에 101명, 고등감별사에 2명이 신청하여 103명을 대상으로 감별사 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번 초생추감별사 자격시험은 오는 22일 부산병아리감별학원에서 실시기로 하였다. 자격시험 결과는 시험당일 발표하고 소정의 합격증을 교부한다.

채란계 점등관리와 뉴켓슬 예방대책 세미나 개최

—데칼브와렌 점등프로그램 설명—



고창양계는 데칼브와렌을 중심으로 한 채란계 점등관리와 뉴켓슬 방역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본회 후원으로 지난 5월 18일 서울 축산회관에서, 19일 광주 카톨릭회관에서 개최하였다.

데칼브농장 Eugene Liu 씨가 “수익성 증대를 위한 채란계 점등관리”, 고창양계 나만채 병리실장이 “예방사례를 통한 뉴켓슬 분석 및 예방대책”에 관한 강의 있었다.

Eugene Liu 씨는 각 품종별로 권장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육종회사에서 권장한 프로그램대로 점등관리를 하는 것이 수익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데칼브와렌은 육성기 점등이 중요하며, 산란계사 입사 후에는 일장시간이나 조도를 감소시키면 안된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122 페이지 참조

전국 채란양계인 단합대회 개최 —계란수입대책위원회 구성—

전국 채란양계인 단합대회가 5월 채란분과위원회를 겸해 지난 5월 15, 16일 속리산 속리파크호텔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월례회를 개최하고, 등산 및 오락시간을 가져 양계인의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월례회에서는 업계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난 문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 양계산물 수입에 대한 문제를 집중 토론하였다.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상승하면서 인력의 질은 저하되고 있어, 업계차원에서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양계협회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달라는 건의를 하였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장에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합한 시설이 공급되지 않아 어려움에 따른다고 의견을 같이하며 이에 대해 생산자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 따라서 자동급이기에 적합한 급이통의 구조와 물과 사료를 절약할 수 있는 V자형 유수식 급수기를 제작하도록 기구업체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 흐름과 관련하여 생산자가 수입개방에 대해 방관할 경우 정부의 수입저지에 대한 의지결여와 연관되어져 계란수입이 본격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계란의 무절제한 수입을 초기단계부터 막기위해 계란수입저지대책위원회 구성하기로 하였다.

본회 계군혈청검사사업 재개

—가축위생연구소와 신청농장 대상으로—

본회는 효과적인 닭질병 방역을 위해 계군혈청검사 사업을 신청농장에 한해 6월부터 실시기로 하였다.

계군혈청검사사업은 가축위생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오다 희망농장의 감소로 중단되었었다. 그러나 다시 질병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혈청검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금년부터 본회에 계군혈청검사를 신청한 농장을 대상으로 가축위생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게 되었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외식업체 소비자 가격인하 요청키로—

5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병아리가격은 450~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도 육계가격은 900원 내외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북경기에 대한 집중적인 전망으로 열기를 띠었다. 최근 육계사로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육계가격은 약세가 예상되며 6월이 5월보다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되리라 예상했다. 또한 큰닭은 정상 출하가 되고 있으나 작은 닭이 체화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 역시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측하였다.

육계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체는 소비자 가격을 동결하고 있어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므로 소비자 가격을 낮추도록 협조요청키로 했다.

6월 육계분과위원회는 27일 경북지부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육계계열체계 조기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육계산업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본회가 후원한 육계계열체계 조기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월 22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생산자, 계열주체, 외식업체 및 유통업자, 유관기관, 연구계 등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전환기적 시점에 와 있는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생산기반을 안정시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계열화체계가 조기에 정착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사육주체와 생산자가 공동운명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계열화의 조기정착에 대한 필요성은 절대절명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토론내용을 종합해 보면 ▲계열체계로 전환되어도 국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어 인식재고가 필요하다 ▲계열체계가 정착되면 생산비는 kg 당 6백원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나 미국에서 헐값에 들어올 수 있는 닭다리에 대한 문제해결이 따라야 한다. ▲최근 육계계열화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자 당장 국제경쟁력이라도 생긴양 닭고기는 수입개방시켜도 상관없다는식의 사고방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등으로 요약되고 있으며, 토론회에 앞서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실장의 「육계계열체계의 필요성과 현황」, 미국계열화전문가 David seibel의 「미국육계계열화와 계육제품개발」, 박영인회장의 「육계계약사육체제에 관한 올바른 이해」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일본 양계현대화시설 자재전 참관 —계분처리에 높은 관심 보여—

6월 27, 28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제29회 전일본 양계현대화시설 자재전에 60여명의 양계업자, 기구, 사료업체 등에서 참관할 예정이다.

본회가 주선하여 시찰키로 한 이번 전시회는 양계장 현대화 시설 및 계분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경영합리화에 대비한 기자재 등 일본에서 100여개의 기계·기구업체가 출품하여 전시한다.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세계적으로 PS 부족 현상—

5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식)이 지난 9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채란계 분야는 병아리가 부족되고 있으나 경기가 좋고 산란노계(유색) 가격이 2천4백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황이 예상되어 중추업체의 입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병아리 부족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노계가격이 너무 높아 육가공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칠면조육 수입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적극적인 노계도태가 필요하다고 했다.

육계분야는 세계적으로 동구권 개방화 등 닭고기 수요증가로 닭고기 시세가 폭등하고 있으며, 종계의 공급이 부족하여 PS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축산원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추진
위원회 구성

—축산관련단체장 회의에서—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축산관련단체장 회의가 본회 신흥종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들이 모여 지난 5월 18일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축협중앙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배합사료 원료중 국산옥수수, 대두박 사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없이는 내년부터 절대로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임을 정부에 통보하고 대처방안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사원모집

당사는 축산자동화 시설 제조 업체로서 사세확장에 따라 회사발전에 동참할 의욕적이고 성실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00명
 2. 응시자격 : 공고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3.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사진첨부)1통
 2) 주민등록 등본1통
 3)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에 한함)
 4. 제 출 처 : 우편번호 585-8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768
 (주)고창기계시스템
 5. 제출기한 : 1990년 6월 30일
 6.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 접
- *서류심사 통과자는 개별통지함.
 *관련분야 유경험자, 군필자 및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고창기계시스템 본사(0677-63-30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고창기계시스템**